



온라인 사회파수꾼으로 나선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납니다.”
 제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 강지원 변호사는 ‘바른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맹자의 사상을 인용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라도 그런 불행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듯이 누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바른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호소하는 양심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느냐”는 반론에 강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 위원장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범죄가 없는 세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범죄 발생비율이 대폭 축소되면 이를 ‘성숙한 사회’라고 일컫는데, 성숙한 사회로 가기에는 법과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어 양심운동 전개가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혹여 ‘유명세 때문에 정통윤 위원장이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강 위원장은 이미 정통윤에 오랫동안 관련돼 왔다. 지난 95년 초대 정통윤의 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고, 이후 ‘e클린 코리아’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에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이 부모와 스승에게 ‘사랑의 이메일’을 보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유익한 장이 되려면 인터넷 자체가 인성 계발의 장이 돼야 합니다. 또 채팅용어와 이모티콘 모두를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그 창의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부문은 기성세대들도 눈살을 찌푸리지 말고 숨겨진 재능을 계발하는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산업적 측면을 도외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 강 위원장은 “보안SW 등 부작용을 억제하는 기술 또한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인 것처럼 보호와 축진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축진할 부문은 권장해서 ‘유해사이트 규제’와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사임하면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를 통합하자고 주장했을 정도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중복의 소지가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인 정통윤과 문화관광부 산하인 영산물등급심의위원회간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청소년인권보호센터 대표, 법률사무소 ‘청치’ 고문 변호사 등 수많은 직함만큼 인터뷰 내내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밖에는 그와의 상담을 원하는 이들로 줄서 있었다. 짧은 인터뷰 시간이었지만 참 바쁜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이 많은 일들을 잘해내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의 대표적인 사회파수꾼으로서 그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